

휘슬링



독 후 활동 지

이름
학교 | 학년
지도교사

특별한서재

“휘파람을 불 때마다, 내 곁을 지키던 작은 위로가 있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휘파람을 부는 수채
교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주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만
문제아 안민수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마음이 꺾어져 간다.

울음이 나오려고 하면
잠시 가슴을 문지르면서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매일을 견뎌 내고자 휘파람을 불지만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건
친구도 가족도 아닌 강아지 덤덤이뿐인데…….

수채는 울음이 날 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휘파람’을 불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덩덤이, 들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만약 휘파람을 분다면 어떤 감정을 담아 불고 싶은가요?

수채는 ‘휘파람’을 이용해 덩덤이, 들개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며, 점점 개들의 세계를 이해합니다. 인간의 언어인 ‘말’이 아니라 휘파람 ‘소리’로 감정을 주고받은 것처럼 몸짓이나 표정,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만으로도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과거, 뎡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였던 미주는 아팠던 경험을 수채에게 털어놓습니다. 미주는 과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사회적 시선과 소문은, 미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또 내가 만약, 미주의 친구였다면 미주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문제아 안민수는 직접 폭력을 쓰거나 자신의 패거리를 이용해 수채에게 강도 높은 학교폭력을 저지릅니다. 교내에는 학교 폭력을 목격한 동급생들도 많았지만 누구 하나, 수채를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무관심이) 폭력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까요? 내가 만약 목격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한 선택

선택한 이유

수채는 안민수의 학교 폭력, 미주와의 깨진 우정,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덤덤이’를 보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 속에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지요. 나에게도 ‘덤덤이’ 처럼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